

#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6기 건설에세이 최우수작

승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김재욱

## 건축을 전공한 친구의 토목이야기

2002년 3월 2일 청운의 꿈을 안고 건축공학과에 입학하여 학부 4년 군대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친구는 건축의 삶을 계획하고 취업이라는 문 앞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선 그의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실내건축, 건축공학, 건축학의 전공을 가지고 있어 공학과라도 설계, 디자인 수업을 들어야 했다. 다른 학교와는 다른 전공 구성에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의 학교에는 토목공학과가 없어 토목에 대한 지식, 경험을 얻을 수 없었다.

졸업을 앞둔 겨울방학 5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에게 토목이라는 분야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바로 1주일간의 현장 OJT 시간!

그가 가게 된 현장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사업인 4대강 사업이었다. 2년의 짧은 사업기간, 수십조의 돈이 몰리고, 전국의 4대 주요 물길을 넓히고 개선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토목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경기도 인덕원의 어느 3층 사무실.. 20여명의 직원들이 숨돌린 틈도 없이 부산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바로 4대강 사업을 management 하는 H사 컨소시엄의 합동 사무실이다. 여기가 일주일 동안 직접 업무를 이해하고 직원분들을 통해 배울 공간이었다. 단장님의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으로 그는 토목 현장으로 발을 들였다.

현장 사람들의 열정적인 강의와 토론, 그리고 그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들.. 모두 그에게는 새롭고 재밌게 느껴졌다. 그는 OJT 기간에 토목 현장과 실무를 보면서 3가지를 말하였다.

첫째, 스케일.

맞다. 건축전공인 그는 4대강사업, 토목현장의 스케일에 위축 될 수밖에 없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 해저터널, 바다를 메워 만드는 공항 등 주변에 있었지만 관심이 적었던 분야와 그 크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토목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건축의 스케일과는 분명히 달랐다.

둘째, 자부심.

“당신이 문을 열고 나갈 때 토목 현장을 밟지 않고는 단 한발 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000부장. 첩첩산중에 길을 만들고, 전기, 물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하는 그들의 일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들 속에 있는 자부심,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이다.

셋째, 열정, 꿈.

새벽 1시..2시.. 토요일.. 일요일.. 그 들의 달력에는 빨간색 날짜는 없었다. 본인에게 맡긴 일에 대한 열정. 그것들 하나하나 모여 생기는 꿈. 그 꿈은 생각의 꿈이 아니라 바로 실현될 현실이었다.

꿈과 열정. 일에 대한 소명과 자부심. 이 모두 건축과 토목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만들어 온 것이다. 모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흘린 땀들인 것이다. 건축을 전공한 친구는 토목 현장 OJT를 통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Civil Engineering! 원래 건축과 토목은 하나였을 것이다. 나누어 공부하기보다 학부 시간부터 같이 공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동맥과 모세혈관 또 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의 시각, 생각 들을 더 넓게 해준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감사하다.